



신선식품 가격 '굉충' "간편식으로 상처 받음" L1



Life

비비고, 새 비로 K-푸드 대명사 자리매김 L2



이웃·환경 위한 마음 하나로... "행복 나누는 금융 펼쳐요"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하나증권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대한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고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증권이 ESG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사회공헌 캠페인,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ESG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기업윤리 및 환경정책, 주주환원 정책 등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만큼 하나증권은 앞으로도 ESG 경영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함께 성장하며 행복나누기 위해...커넥트 시리즈 전개

하나증권은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는 하나금융그룹의 미션을 실천하고자 사회의 실질적 필요와 문제 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기업과 사회가 연결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경영 및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사회공헌 부문에서는 ▲사랑나눔 ▲생명나눔 ▲희망나눔 등 3가지 테마로 사회공헌 캠페인 커넥트(CONNECT) 시리즈를 전개하고 있다.

사랑나눔은 이웃돕기 활동이다. 지난해 강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시리아 일대를 지원하기 위해 손님과 직원, 회사가 함께 참여하는 기부 캠페인을 실시했다. 하나증권 홈페이지와 모바일 트레이딩 서비스(MTS) 원큐프로에서 기부 참여 배너를 클릭하는 방식으로, 임직원이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기부에 참여하면 동일 금액만큼 회사와 매칭돼 기부금이 적립되는 형식이다. 모인 기부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강진 피해를 본 튀르키예, 시리아 일대를 지원하기 위한 구호 활동에 쓰였다. 이외에도 하나증권은 에너지 취약계층 어르신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강원도 원주시 원인동 일대에서 연탄 6000장과 생필품을 담은 행복상자를 지원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생명나눔은 의료지원 활동으로, 헌혈 캠페인이 대표적이다. 하나증권은 지난해 5월에도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 여의도 하나증권 본사에서 헌혈차를 운영해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했는데 2주 동안 집중헌혈 기간을 운영해 본사는 물론 전국 영업점 임직원들 역시 지역별 헌혈의 집을 통해 헌혈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하나증권은 헌혈 문화 정착 및 확산을 목적으로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다양한 캠페인을 준비 중이다.

희망나눔은 장애인과 아이들을 위한 활동이다. 지난해 초 서울맹학교의 시각



1 사랑·생명·희망 3가지 테마별 나눔 에너지 취약계층 위해 생필품 기부 본사·영업점 임직원 '헌혈 캠페인' 시각장애아동 점자도구 제작·전달

2 방글라데시에 태양광 정수시설 보급 식수난 해결,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자발적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 노력

3 장애 아동들에게 점자도구를 전달하며 인연을 맺었다. 특히 하나증권 임직원 10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점자도구를 직접 제작해 전달했다. 지난해 5월 초 국립서울맹학교 아이들과 서울어린이대공원에 다녀오는 봄나들이 봉사활동도 진행했다. 하나증권 임직원들과 국립서울맹학교 학생들은 1대 1로 매칭돼 서울어린이대공원의 놀이동산과 식물원 등을 함께 체험했다.

하나증권은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계절별 의류 기부 캠페인을 실시 중이며 이를 통해 국내외 취약계층 지원과 함께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의류 재사용을 통한 자원순환 및 탄소 배출 감축 효과를 거뒀다.

◆환경 부문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사업 등 활발한 활동

하나증권은 환경 부문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저탄소경제 비즈니스 실현을 위해 방글라데시에 태양광 정수시설 123대를 보급하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나서고 있다. 식수난을 겪는 방글라데시에서 태양광 정수시설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기존 물을 끓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석연료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성 증대, 시설 관리를 위한 고용 창출 등 다양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나증권은 지속가능경영활동과 성과를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도 발간하고 있다. 지난해 '2022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지속가능경영보고



1 지난해 12월 8일 강원도 원주시 원인동 일대에서 강성목 하나증권 대표이사(가운데)와 하나증권 임직원들이 '따뜻한 겨울나기 필수품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2 갈상면 하나증권 ESG본부장(왼쪽에서 두번째)과 김동복 한국점자도서관장(왼쪽에서 세번째)이 점자도구 전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3 하나증권 임직원이 피로회복 프로젝트 생명을 나누는 헌혈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하나증권

서는 다섯 번째 발간으로 하나증권 지속가능경영체계와 ESG 항목별 활동 성과 등을 소개했다. 외부 환경과 사회적 요인이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과 기업 경영활동이 환경, 사회에 미치는 비재무적 영향을 양방향으로 분석한 이중 중대성 평가 모델을 도입해 중요 이슈 등을 공개했다.

환경 부문에서는 자발적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 노력과 저탄소 경제 비즈니스 관련 주요 투자 현황, 친환경 경영 활동 등을 다뤘다. 지난 2021년 국내 증권사 최초로 탄소배출권 시장조성자로 선정된 데 이어 2022년 자발적 탄소배출권 업무 등록을 마쳤다. 또 2022년 말에는 싱가포르

탄소배출권 거래소 CIX(Climate Impact X)와 자발적인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밖에도 하나증권은 탄소중립 ESG 상장지수증권(ETN) 상품을 출시하는 등 ESG 투자 상품 라인업을 강화했다.

하나증권 관계자는 "비우호적인 영업환경에도 리스크 관리에 역점을 두고 실적 향상에 집중하는 한편 임직원들과 함께 다양한 ESG 활동을 진행 중이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ESG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이번엔 무승부 없다 7일 요르단과 리턴매치 ▲'FC서울행 임박' 링가드, 한국행 비행기 탑승 인증샷...오늘 입국 /사진 뉴시스

▲메시 '노쇼'에 빨간 홍콩팬 "85만원 물어내" 야유 세례 ▲김하성, 2025년 MLB FA 중 15위... 젊은 나이도 장점



▲다이빙 이재경·김영택, 세계선수권 남자 싱크로 3m 8위...파리행 무산 ▲빙속 김민선, 월드컵 500m 0.2초 차 은메달...8연속 메달 /사진 뉴시스